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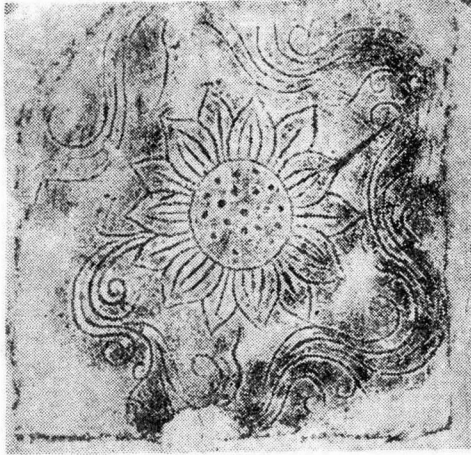
〔註〕拙稿『高麗興王寺址의 調査』(白博士紀念佛敎學論文集)에 圖版收錄)

紹修書院 講堂 上樑記

尹 武 炳

一九五八年 가을 紹修書院 講堂을 修理하였을 때 中央 마루道理에 墨書한 다음과 같은 上樑記가 發見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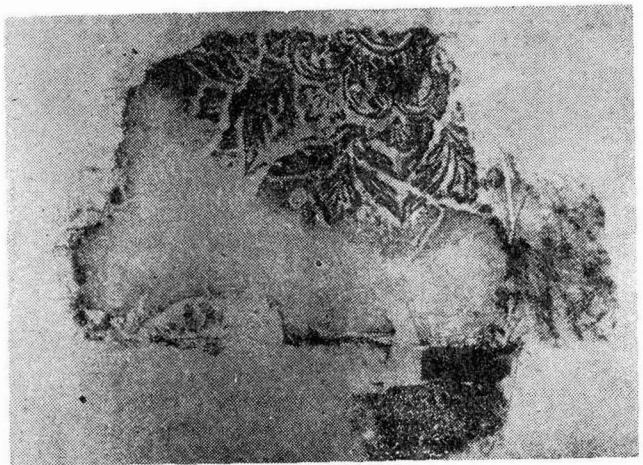
壬寅十月二十日申時上樑
院長 琴心宅 都監 李重慶 裴憲謨
都木手 讚謙 印潭 軌祥 大機 元聖
引鉦 千三福 金龍大 治匠 全演三
廟直 朴於叱迷 城上 李儀章



德峰寺址出土方磚

매우 平凡한 上樑記로서 그 글 自體에는 別로 問題가 될 만한 것도 없다. 院長은 書院의 長이며 대개 書院에는 이 院 長 밑에 有司 一人을 두었다고 하므로 都監 두 사람은 그 有司 들인 것같이 생각된다. 木手 引鉦 治匠 等 工事關係 技術者들에 對한 名稱도 흔히 볼 수 있는 이

름이고 廟直은 廟祠의 守直, 그리고 城上은 원래는 宮闕內에서 使役하는 下隸를 말한다고 하나 이 곳에서 도역시 그러한 賤役을 맡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 以外에는 特別한 것 도 없으나 다만 木手들의 이름이 두 자씩으로 되어 있어서 그 모두가 중들인 것 같다는 점이 좀 재미있게 느껴질 뿐이다. 이 上樑記와 함께 같은 道理의 一部에 네모나게 판 구멍 속에서 白紙에 쓴 金上樑文이 같이 發見되었으나 그다지 重要的 文句도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에는 省略하였다. 紹修書院은 누구나 아다싶이 우리나라 賜額書院의 嚆矢로서 高麗名儒 文成公 安珦을 奉祀하고 있다. 그 建立은 近世朝鮮 中宗三七年(一五四二)壬寅에 當時의 豊基郡守 周世鵬이 公의 舊居인 順興 白雲洞에 먼저 祠廟를 일으키고 다음해 다시 그 옆에다가 書院(白雲洞書院)을 세웠다 하며, 그 후 明宗 五年에 李滉의 上言으로 紹修書院의 賜額을 받게 되었다던 것이다. 初期에 建立된 代表的인 書院의 하나로서 그 主要建物에 對한 正確한 年代는 우리나라 書院建築 研究上 매우 貴重한 資料를 提供하게 되므로 이번 上樑記의 發見은 대단히 多幸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



龍岩寺址出土綠釉磚

는 것이다.

그러나 이 上樑記에 말하는 壬寅年이 어느 壬寅에 該當하는지는 갑자기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이 書院 創立當時의 壬寅歲가 아님은 아직 있을 수도 없는 院長의 이름이 보이는 데서 곧 짐작이 간다. 그것은 또한 같이 發見된 白紙의 上樑文中에 「明廟親題已揭作人之坏樸」이라는 句節이 있어서 이 講堂이 明宗 以後의 建立임이 더 疑心할 餘地도 없는 바이지만 그 以上年代를 明白히 指摘할 수 없는 것을 遺憾스럽게 생각한다. 筆者의 생각으로서는 中宗 三七年 다음에 돌아오는 壬寅年(宣祖三五年 一六〇二)은 倭亂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미 各地에서 文廟에 對한 再建도 이룩되어 있었으므로 紹修書院도 이 때에 새로 造營이 있었다고 보아서 觀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보다 二年 앞서 再建된 慶州文廟의 大成殿과 그 貢包의 細部 形式을 比較해 보면 簷遮의 形態에서 恰似한 點이 있으므로 이러한 推測은 대개 틀림 없는 것으로 믿어 진다. 그러나 이 上樑記의 年代를 確實히 하는데 가장 손쉬운 方法은 當時의 院長이 우리나라에서는 稀姓인 奉化 琴氏의 한 사람임으로 그 家乘을 調査해 보면 쉽사리 밝혀지지 않을까 期待하고 있다.

玄風 石水庫

秦 弘 燮

慶北 達城郡 玄風邑에 石水庫가 있다는 말을 듣고도 現地를 調査할 機會가 없다가 今年 三月에 이를 調査한 바 있어 이에 紹介한다.

玄風國民學校 東쪽 언덕 南端에 南北으로 길게 構築되었으며 入口는 北쪽에 있고 南쪽이 알아서 그리 빠진 물은 邑內 북관을 흐르고 있는 龜川으로 빠지게 된다. 封土는 頽落이甚하고 特別 南端은 天井石이 露出되어 一部 盜難당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入口는 大破되어 形態를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

內部에는 轉落된 石材와 흙이 차 있어 底面의 施設을 알 수 없다. 虹霓는 四個며 그 사이에 長大石數枚를 걸쳐서 天井을 삼고 二處에 換氣孔이 있다.

壁은 雜石을 利用하였으며 大體의 構造는 慶北道內에 있는 다른 水庫와 같다.

特別 天井을 構成한 長大石中에 唐草文과 火炎文이 彫刻된 光背石 破片이 一枚 끼여 있다. 中央에는 정자리가 있어 돌로 切斷하려다만 자리가 남아 있다. 이 斷片은 아래 위가 切斷된 것은 하였으나 彫刻은 優秀한 것이다. 이 水庫東方 산 기슭에는 等身大의 石佛이 있다고 하니 必是 그 近處에 寺院이 있었을 것이고 이 光背

長一〇・四m 廣四・二m 高二・六m

